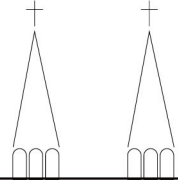


#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Relentless Hope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



강사 김하나 목사

##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시 42:5)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인류 역사에는 뛰어난 연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워싱턴 D.C. 연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은 연설로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5만 명이 뺨뺨이 운집한 곳에서 킹 목사님은 준비해 온 짧고 공식적인 연설을 하고 앉으려고 했지만, 가스펠 가수인 마할리아 잭슨(Mahalia Jackson)이 “마틴,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줘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전한 꿈과 소망의 메시지는 워싱턴 D.C.를 넘어 미국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를 나누는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1963년 8월 28일

당시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있었지만, 킹 목사님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인맥이 화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끈질긴 복음의 신념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선동가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록 비관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고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 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두 개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2018년 3월 ‘믿음에 굳게 서라’에 이어서 2019년 3월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의 주제를 갖게 된 것은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의외의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명성교회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평생 붙잡고 가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 조지 뮐러(George Muller)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2019년 현재, 우리는 통일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발끝에서 느끼지만 또한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정세와 국내의 사회, 경제, 정치의 문제가 녹록지 않은 것을 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청년들에게 좁아지는 취업의 문, 각양각색의 도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교회의 하락세를 말하며 한국 교회는 이미 다 무너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

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제를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시편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1절)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고(3절), 옛 아름다운 기억들에서 오는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4절). 버티려고 해도 주변에서 상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남들의 눈 때문에 부끄럽고 또 그들의 눈이 두려운지요... 현재가 어려운 사람은 아름다운 과거도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5절에는 전혀 다른 저자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선포하는 복된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자는 더 이상 눈물로만 살지 않겠노라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disturbed)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님은 유명했던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시브스(Richard Sibbes)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5절이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용해서 만드는 응원 구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롬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흥미 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4~5명의 인원을 배치한 뒤에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을 나눈 뒤에 30분 정도 서로의 이야기한 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덕목들이 자주 생각이 나고 마음에도 무게감을 갖고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왔던 덕목들은 이와 같습니다.

겸손, 진실됨, 관리 능력, 경청 능력, 섬김, 독창성, 정직, 소프트 스킬

그러나 그 회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덕목은 ‘소망을 소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또한 길러내고 싶은 리더는 “현실적(realistic)이지만 지극히 끈질긴(relentless)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리더는 스토리 텔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며 특별히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냉정하게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죄를 보았고, 그들의 악함과 약함을 보았고, 세상에 만연한 슬픔과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죄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주신 말씀은 항상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함께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눈물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애 3:19-25**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니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 선하시도다

**속 9:12**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값을 것이라

리더라는 단어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사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맨 앞에 서야만 리더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 소통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을 소통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비관을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국어사전은 덕을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덕은 단순한 도덕적 능력이 아니라 탁월함(excellence)입니다. 믿음의 덕, 인내의 덕, 소망의 덕은 바로 이런 탁월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단순히 생각하여 간절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는다고 해야 합니다.

“소망은 신학적 덕목(virtue)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소망, 즉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바라보는 자세가 어느 현실도피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님을 뜻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덕목이다.”

- C. S. 루이스(C. S. Lewis)

### 무엇을 소망하는가?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신약에서 소망은 엘피스(ἐλπίς)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십니까? 소망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소망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소망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은 가깝게는 장난감을 소망하고, 멀게는 어른이 되어서 되고 싶은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번듯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장년들은 승진과 넓은 집과 건강 등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는 것과 이루는 것에는 단순한 시간 외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소망의 향구에 닿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낸 인물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온전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잠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막연히 긍정적이 되는 것만이 아니며, 더 큰 꿈을 꾸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에 근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해져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됩니다. 교회는 꿈을 꾸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그 새로운 삶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창 37:19)라고 말했던 요셉의 형들은 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소망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시작해야 함을 알고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